

기·출·의·파·급·효·과
영어(상)



영어(상)
기출의 파급효과

영어(상)

(상)

Chapter 1. 대의 파악_8p

Chapter 1-1. 지문에는 이해해야 하는 중심 문장들이 있다. (주장/요지)_10p

Chapter 1-2. 평가원 오답 선지의 Pattern. (주제/제목)_43p

Chapter 2. 빈칸 추론_90p

Chapter 2-1. Targeting & Paraphrasing. (빈칸 추론)_92p

Chapter 2-2. A/B 치환. (고난도 빈칸 I)_136p

Chapter 2-3. Generalization. (고난도 빈칸 II)_158p

Chapter 2-4. 함축의미 추론유형도 결국은 빈칸이다. (함축의미 추론)_181p

Chapter 2-5. 요약이 빈칸화되고 있다. (요약)_195p

(하)

Chapter 3. 전개상 흐름 파악

Chapter 3-1. 무관하दा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흐름 무관)

Chapter 3-2. 어휘 문제의 정답은 흐름상 반대말이다. (어휘, 41~42)

Chapter 4. 간접 쓰기

Chapter 4-1. 순서는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연결된다. (순서)

Chapter 4-2. 문장삽입은 단절과 근거를 찾아야 한다. (문장삽입)

Chapter 5. 교육청 Half 모의고사 5회분

이 책을 펴내며

2022학년도 수능 영어는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평가원은 EBS 연계율을 50%로 감소시키고 연계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50% 간접연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접연계로 변경될 경우 2021학년도 수능까지 EBS를 꼼꼼히 분석했던 방식이 아닌, 기출을 통해서 실질적 영어 독해 능력을 길러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EBS의 중요도는 떨어지고 기존에도 중요했던 기출의 중요성이 2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비분만 아니라 시중에서는 수많은 기출 분석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교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들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교재들은 구문 분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구문같은 경우 분석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어려운 구문마저 분석해주지 않고 그저 단순히 해석만 제공하고 있는 기출 교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모든 해설을 한 문장 한 문장씩 꼼꼼하게 해설해 드리고 각 문장마다 구문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여태까지 과외를 하고 문제집 출판을 통해서 받은 질문들과 궁금증들을 모아 그 해법을 보여드리며, 어떤 교재보다도 꼼꼼하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어휘 제공에 있어 불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휘의 경우 폭넓은 암기를 통해 시험장에서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학생들이 단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단어의 형성에 포함된 접두사, 접미사를 분석해 단어가 구성되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연결하다”라는 뜻의 ‘connect’라는 동사에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re-’라는 접두사가 붙어 ‘reconnect’가 되어 ‘재연결하다, 다시 연결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됩니다. ‘re-’라는 접두사에 대해 아는 순간 ‘re-establish (다시 건설하다)’, ‘reset (다시 맞추다)’, ‘redo (다시 하다)’ 또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필수 단어들의 뜻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단어가 형성되었는지를 고교 수준에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설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풀이가 일관되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영어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풀이가 되는 기출 지문들만 선별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만 익힐 경우 풀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문이 수능에서 출제될 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옛 기출을 통해서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연습한 후 절대평가가 시행된 2018학년도 6월 모평부터 2021학년도 수능까지 모든 문제를 일관된 방식으로 풀어드립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이 등장하고 전체 과목에서 EBS 연계율이 50%로 감소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수험생 분들이 많은 혼란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에서는 혼란이 없으시도록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출문제들을 해설했습니다. 또한 평가원 기출만으로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Chapter에는 절대평가가 시행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청 문제를 선별한 Half 모의고사 5회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그 누구보다 양적으로 풍부하게 준비한 교재입니다. 수능 영어의 영감을 얻고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수능 영어 1등급을 향해 달려봅시다!

영어 학습방법 소개

1.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입니다! **기출에서 제시된 어휘들은 반드시 습득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독해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문장에 사용된 단어를 알지 못한다면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휘가 구성되는 원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 교재로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따로 정리하여 외우시길 바랍니다.
2. **평가원 기출의 모든 문장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구문들은 분석해드리지만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다른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되시는 경우 질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풀이법을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던 문제들이더라도 책에서 보여드리는 풀이법으로 근거를 찾아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에 제시된 풀이법은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풀이법으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간에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된 풀이법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질문 카페 소개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



atom.ac/books/7608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 시리즈

파급의 기출효과



cafe.naver.com/spreadeffect
파급의 기출효과 NAVER 카페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은 기출의 파급효과 영어와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서입니다.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은 어려운 3점~4점 기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도구와 태도'를 정리합니다. '꼭 필요한 도구와 태도' 체화를 위해 관련도가 높은 준킬러 이상 기출을 바로바로 보여주며 체화 속도를 높입니다. 단시간 내에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재가 설계되었습니다.

학습하시다 질문이 생기신다면 '파급의 기출효과' 카페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재 인증을 하시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감, 안드브, 슬기롭다, 파급효과, 출기능수 등등 오르비 저자분들이 올리시는 학습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저자 분들의 콘텐츠 질문 답변도 교재 인증 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검증된 우수한 컨설팅 팀이 정리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시, 수시 입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질문은 가입하시지만 하면 팀장 및 팀원분들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https://cafe.naver.com/spreadeffect/15>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책 소개

저희 교재는

‘Ⅰ. 설명 듣기 ⇒ Ⅱ. 같이하기 ⇒ Ⅲ. 혼자 하기’의 틀을 반영하여 학습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 1. 평가원이 제시한 유형

평가원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제시한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습안내와 2021학년도 대학 수능능력 시험 학습 방법안내를 통해서 평가원이 각 유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같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정립하고 유형별로 학습합니다.

◆ 2. 본문

본문에서는 1. 평가원이 제시한 유형을 통해 정립한 풀이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절대평가 이전 평가원 기출을 예시로 하여 풀이법을 세부적으로 정립하며 해당 유형을 학습합니다.

◆ 3. 체화

2. 본문에서 학습한 풀이법의 중요 사고 과정을 절대평가 이전 평가원 기출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체화의 과정을 통해서 2.본문에서 배운 풀이법과 각 유형별 접근법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 4. 중. 최. 평. (중요 최신 평가원 기출)

2. 본문에서 배우고 3. 체화에서 본인의 것으로 만든 풀이법과 접근법을 최근 평가원 중요 기출에 적용하여 같이 풀어보는 과정입니다. 중요 기출을 본책에서 같이 풀어보며 해당 유형에 대한 최근 평가원 기조를 파악하고 풀이법을 최근 평가원에도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 5. 절. 모. 평. (절대평가 이후 모든 평가원 기출)

2. 본문에서 배우고 3. 체화에서 연습하며 4. 중. 최. 평.에서 최근 평가원 기출에 적용한 것을 연습한 방법을 절대평가 이후 모든 평가원 기출에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책 기호

구 문장의 구문 해설과 문장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독 문장에 대한 독해입니다. 지문 속 문장의 역할과 사고과정에 대한 해설입니다.

* - 단어나 주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Q & A 학생들이 자주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Chapter

1

대의 파악



Intro. 평가원이 제시한 대의 파악

대의 파악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풀이법보다도 평가원이 제시한 풀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습 안내 6p]

글을 읽고 글의 요지, 즉 글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글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을 빠르게 읽어 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평가원이 대의 파악 유형에서 핵심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즉, 주제가 반복되고 재진술된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재진술된 문장을 중심 문장,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문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 105p]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또는 역접의 연결사가 제시된 경우 그 이후 부분을 중심으로 지문에서 제시되는 반복적인 어구 또는 특정 개념과 관련된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글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분석하여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목을 선택해야 한다.**

- 평가원이 제시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글의 마지막 문장만 파악하는 것이 아닌 첫 문장과 역접의 연결사가 제시된 경우에도 글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글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따라가야 하며 글의 흐름을 전환하거나 전개하는데 중요한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Chapter 1-1에서 평가원이 제시한 역접의 연결사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인과, 실험, 예시, 명령문등을 인식하고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체화시킬 것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 104p]

본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글의 핵심 내용을 제목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글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축적이거나 은유적으로 또는 의문문이나 명령문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선택지를 제목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 105p]

마지막으로,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을 때 오답이 가진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오답의 경우 지문에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지문과 일부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되기도 하지만, 중심 소재나 주제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일반적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즉, 오답은 주로 지문의 일부 내용 요소를 다루지만,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것을 언급하거나 중심 소재나 내용 요소를 언급하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평가원이 주제/제목을 출제할 때 오답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준으로 Chapter 1-2에서 오답 선지 파악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1. 모호한 선지

주제/제목 문제에서 비유적 표현이나 질문선지를 통해서 선지에서 혼동을 주는 경우 존재합니다.

다음 기출 문제를 풀어 봅시다. 두 개의 선지 중 하나는 왜 답이 되고 하나는 답이 안 되는지 이유도 적어 봅시다.

17학년도 수능 22번

As a system for transmitting specific factual information without any distortion or ambiguity, the sign system of honey-bees would probably win easily over human language every time. However, language offers something more valuable than mere information exchange. Because the meanings of words are not invariable and because understanding always involves interpretation, the act of communicating is always a joint, creative effort. Words can carry meanings beyond those consciously intended by speakers or writers because listeners or readers bring their own perspectives to the language they encounter. Ideas expressed imprecisely may be more intellectually stimulating for listeners or readers than simple facts. The fact that language is not always reliable for causing precise meanings to be generated in someone else's mind is a reflection of its powerful strength as a medium for creating new understanding. It is the inherent ambiguity and adaptability of language as a meaning-making system that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thinking so special.

* distortion: 왜곡, 곡해

④ What in Language Creates Varied Understanding?

⑤ Language: A Crystal-Clear Looking Glass

정답 :

정답인 이유 :

오답 :

오답인 이유 :

As a system for transmitting specific factual information without any distortion or ambiguity, the sign system of honey-bees would probably win easily over human language every time. **However**, language offers something more valuable than mere information exchange. Because the meanings of words are not invariable and **because** understanding always involves interpretation, the act of communicating is always a joint, creative effort. Words can carry meanings beyond those consciously intended by speakers or writers **because** listeners or readers bring their own perspectives to the language they encounter. Ideas expressed imprecisely may be more intellectually stimulating for listeners or readers than simple facts. The fact that language is not always reliable for causing precise meanings to be generated in someone else's mind is a reflection of its powerful strength as a medium for creating new understanding. It is the inherent ambiguity and adaptability of language as a meaning-making system that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thinking so special.

* distortion: 왜곡, 곡해

- I. As a system for transmitting specific factual information without any distortion or ambiguity, / the sign system of honey-bees would probably win easily over human language every time.

* distortion: 왜곡, 곡해

☞ 어떠한 왜곡이나 모호함 없이 구체적 실제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서 'honey-bees'의 신호시스템은 쉽게 모든 인간의 언어를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 II. **However**, language offers something more valuable than mere information exchange.

☞ 'However'을 통해서 전환되며 언어는 단순한 정보 교환보다 더 귀중한 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III. **Because** the meanings of words are not invariable and **because** understanding always involves interpretation, the act of communicating is always a joint, creative effort.

☞ 단어의 의미가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항상 해석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행위가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즉 언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있다고 합니다.

- IV. Words can carry meanings (beyond those consciously intended by speakers or writers) **because** listeners or readers bring / their own perspectives / to the language (they encounter).

☞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그들의 관점을 그들이 마주하는 언어에 가져오기 때문에 단어들은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의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을 넘어서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 문장을 재진술하기 때문에 중심 문장!

* bring A to B - A를 B로 가져오다.

- V. Ideas (expressed imprecisely) may be more intellectually stimulating for listeners or readers than simple facts.

☞ 부정확하게 표현되는 의견들은 단순한 사실보다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을 더 지적으로 자극시킨다고 합니다. 1번 문장과는 달리 모호함이 주는 효과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VI. The fact (that language is not always reliable / for causing precise meanings / to be generated in someone else's mind) is a reflection of its powerful strength (as a medium for creating new understanding).

구 to-V 앞 for은 의미상 주어!!

- for A to-V로 의미상 주어가 제시될 때는 ‘A가 V하는 것’이라고 진짜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 언어가 항상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정확한 의미를 야기하는 것에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매개체로서 강력한 힘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 IV번 문장을 다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VII. It is / the inherent ambiguity and adaptability of language as a meaning-making system / that makes /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thinking) / so special.

구 ‘It’이 지칭하는 대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먼저 가주어/진주어를 의심해봅시다.

- 근데 ‘that’절에 주어가 없습니다!!! It that 가주어/진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that절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 바로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해석하는 법은 It be동사 that을 제거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It is that’을 제거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강조 구문이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서 고유한 언어의 모호함과 적용 가능성이 언어와 생각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VII번 문장 언어의 모호함과 적용 가능성이 언어와 생각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④ What in Language Creates Varied Understanding?

- 언어 안에서 무엇이 다양한 이해를 만드는가?
-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제목으로 질문이 제시되었을 때는 답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고 지문과 관련된 질문이어야 합니다. 언어가 만드는 다양한 이해는 지문에서 1번 문장을 제외하고 계속 재진술 되었던 내용입니다. 무엇이 다양한 이해를 만든다고 했죠? 바로 VII번 문장을 통해서 언어의 모호함과 적용 가능성이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이 됩니다.

⑤ Language: A Crystal-Clear Looking Glass

- 언어 : 매우 투명한 거울
- 비유적 표현이 제시되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제시될 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출제됩니다. 지문 내용과 끼워 맞추지 말고 선지 그 자체로 주는 의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 매우 투명한 거울은 무슨 의미이죠?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문과는 반대되는 선지이므로 오답이 됩니다.

2. 언급되지 않은 선지

선지는 반드시 지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소재가 같은 선지를 통해서 오답 선지를 만듭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답인 선지 오답인 선지를 판별해보시고 그 이유도 적어 봅시다.

17학년도 수능 21번

The precision of the lines on the map, the consistency with which symbols are used, the grid and/or projection system, the apparent certainty with which place names are written and placed, and the legend and scale information all give the map an aura of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 Although subjective interpretation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the finished map appears to express an authoritative truth about the world, separate from any interests and influences. The very trust that this apparent objectivity inspires is what makes maps such powerful carriers of ideology. However unnoticeably, maps do indeed reflect the world views of either their makers or, more probably, the supporters of their makers, in addi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ere made. Some of the simple ideological messages that maps can convey include: This land is and has long been ours; her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f we do not claim this land, the enemies you most fear will.

* aura: 기운, 분위기 ** cartographic: 지도 제작(법)의

- ③ ideologies lying beneath the objectivity of maps
- ⑤ subjectivity defining the creativity of map-making

정답 :

정답인 이유 :

오답 :

오답인 이유 :

The precision of the lines on the map, the consistency with which symbols are used, the grid and/or projection system, the apparent certainty with which place names are written and placed, and the legend and scale information all give the map an aura of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 **Although** subjective interpretation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the finished map appears to express an authoritative truth about the world, separate from any interests and influences. The very trust that this apparent objectivity inspires is what makes maps such powerful carriers of ideology. **However** unnoticeably, maps do indeed reflect the world views of either their makers or, more probably, the supporters of their makers, in addi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ere made. Some of the simple ideological messages that maps can convey include: This land is and has long been ours; her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f we do not claim this land, the enemies you most fear will.

* aura: 기운, 분위기 ** cartographic: 지도 제작(법)의

- I. The precision of the lines on the map (A), the consistency (with which symbols are used) (B), the grid and/or projection system (C), the apparent certainty (with which place names are written and placed) (D), and the legend and scale information (E) all give the map an aura of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

* aura: 기운, 분위기

구 A, B, C, D, and E 병렬 구조

- 지도에서 선의 정확성, 사용되는 상징의 일관성, 격자판 (기준 선망) 그리고 투영법, 쓰이고 위치한 장소의 정확성, 그리고 범례와 축적의 정보들 모두 지도에 과학적 정확성과 객관성의 분위기를 준다고 합니다.

* grid - 격자무늬, 격자판, 기준 선망

** projection system - 투영법

*** legend - 전설, 범례

**** give I.O D.O - I.O(간접 목적어)에게 D.O(직접 목적어)를 주다

- II. **Although** subjective interpretation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 the finished map / appears to express / an authoritative truth (about the world), (separate from any interests and influences).

** cartographic: 지도 제작(법)의

구 비록 주관적인 해석이 지도 제작 요소의 구성에서 들어가지만, 완성된 지도는 어떠한 흥미나 영향에서 분리된 세계에 대한 권위적인 진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 authoritative - 권위적인

** separate from - ~로부터 분리된

*** appear - ~인 것처럼 보인다 (=seem)

III. The very trust (that this apparent objectivity inspires) is (what makes maps such powerful carriers of ideology).

구> The very + N (명사)는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해석하실 때는 ‘바로 그 N’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make + O + O.C’는 ‘O를 O.C하게 만들다’를 의미합니다.
- what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what + V + O + O.C 가 제시되었을 때 ‘O가 O.C하도록 V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 정리하면 그런 외관상 객관성이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진실이 지도를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운반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 apparent - 명백한, 외관상의

Q> 다의어 모두 외워야 하나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외우셔야 합니다. 해석은 당연히 문맥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III번 문장을 다시 봅시다. III번 문장에서 apparent의 1번 뜻인 ‘명백한’으로 해석한다면 명백한 객관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II번 문장에서 권위적인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부정적 문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문맥상 반대말이 역접의 접속사 없이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apparent의 2번 뜻인 ‘외관상의’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있는 데 문맥으로는 반대로 해석된다고 하신다면, **문맥상의 뜻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IV. **However** unnoticeably, maps do (indeed) reflect / the world views of either their makers or (their makers 와 the supporters 연결), (more probably), the supporters of their makers, (in addi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ere made).

구> V 앞에 존재하는 아무 의미 없는 ‘do’는 강조의 ‘do’입니다. 즉 reflect를 강조하는 겁니다!

- 하지만 알지 못하게, 사실상 지도들은 만들어진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함께 만든 사람들 혹은 만든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의 세계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 However 앞과 뒤는 중심 문장입니다!

* either A or B - A 혹은 B

V. Some of the simple ideological messages (that maps can convey) include: (=) / This land is and has long been ours; (,) / her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 / if we do not claim this land, the enemies (you most fear) will.

구> : 는 ‘.’입니다!! (=)로 처리

- ; 는 ‘,’+.’입니다! (=)혹은 (,)로 처리
- ‘the enemies you most fear will’의 뒷부분에 V가 생략되었다면 앞부분 동사와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claim this land’가 됩니다!
- 지도가 전달하는 몇몇의 간단한 이데올로기 메시지들은 그 땅이 오랫동안 우리의 것이었고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며 우리가 그 땅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그 땅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IV번 문장 지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반영된다! 가 됩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③ ideologies lying beneath the objectivity of maps

- 지도들의 객관성 밑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들
- 지문에서 I 번 II 번 문장에서 지도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III 번 문장에서 지도는 이데올로기의 운반자이며 IV 번 문장에서는 지도에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반영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 됩니다.

⑤ subjectivity defining the creativity of map-making

- 지도를 만드는 창의성을 정의하는 주관성
- 주관성은 지문에서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와 여러 사람들의 관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창의성? 언급된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⑤번은 오답이 됩니다.

Q 지도를 만드는 것이 창의적인 활동이 아닌가요?

A 지도를 만드는 것이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판단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수능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어떠한 주장에 대한 글을 읽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 없이 공부하셔야 빨리 성적이 오릅니다.

3. 지문을 포괄하지 않는 선지

포괄하지 않은 선지는 지문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문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이 주장 - 예시 1 - 예시 2일 경우 예시 1에 대해서만 선지를 구성할 경우 혹은 주장 A와 주장 B가 제시되었는데 주장 A에 대해서만 선지를 구성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음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왜 해당 오답 선지가 지문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지 판단해 봅시다.

17학년도 9월 모평 22번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fear has contributed to both fostering and limiting change, and to preserving the species. We are programmed to be afraid. It is a survival need, as is stability, which is another force of nature that can limit the capacity to change. Stable patterns are necessary lest we live in chaos; however, they make it difficult to abandon entrenched behaviors, even those that are no longer useful, constructive, or health creating. And fear can keep you from changing when you don't want to risk a step into unknown territory; for example, some people choose not to leave an unfulfilling job or a failing relationship because they fear the unknown more than the known. On the other hand, fear can also motivate change in order to avoid something you're afraid of, such as dying young — as one of your parents might have.

* entrenched: 굳어버린

- ① fear's negative roles in cases of chaos
- ③ fear and its dual functions in terms of change

정답 :

정답인 이유 :

오답 :

오답인 이유 :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fear has contributed to both fostering and limiting change, and to preserving the species. We are programmed to be afraid. **It is a survival need, as is stability, which is another force of nature that can limit the capacity to change.** Stable patterns are necessary lest we live in chaos; **however,** they make it difficult to abandon entrenched behaviors, even those that are no longer useful, constructive, or health creating. And fear can keep you from changing when you don't want to risk a step into unknown territory; **for example,** some people choose not to leave an unfulfilling job or a failing relationship **because** they fear the unknown more than the known. **On the other hand,** fear can also motivate change in order to avoid something you're afraid of, such as dying young — as one of your parents might have.

* entrenched: 굳어버린

I.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fear has contributed to both fostering and (fostering과 limiting 연결) limiting change, and (to fostering and limiting과 to preserving 연결) to preserving the species.

구 진화론적 관점으로부터 공포는 변화를 조장하고 제한하는데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합니다.

* both A and B - A와 B 둘 다 (either A or B - A와 B중 하나)

** contribute to A - A에 기여하다.

II. We are programmed to be afraid.

구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프로그램 되었다고 합니다.

III. **It is a survival need, (as is stability), (which (계속적 용법)) is another force of nature (that the force of nature 수식) can limit the capacity to change).**

구 여기서 'It'은 II번 문장을 지칭합니다.

- 'as'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연결될 경우, '그러하듯이', '~처럼'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 뒤 which는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앞 문장을 수식합니다!

- 우리가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안정성이 그러하듯이, 생존 욕구인데, 그것은 변화의 역량을 제한시킬 수 있는 다른 자연의 또 다른 힘이라고 합니다.

IV. **Stable patterns are necessary lest (접속사 ~하지 않도록) we live in chaos; however, they make / it (가목적어) / difficult / to abandon entrenched behaviors, even those (that are no longer useful, constructive, or (useful, constructive, health creating을 연결) health creating) (진목적어).**

* entrenched: 굳어버린

구 'make it difficult to~'는 make를 5형식으로 사용한 문장이며 it이 가목적어 difficult가 목적격 보어 'to-V ~'가 진목적어에 해당합니다. make + it + 형용사 + to-V꼴을 기억해 둡시다.

- A, B, or C 병렬 구조

- 안정적인 패턴들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필수적인데, 하지만 그들은 (=안정적인 패턴들은) 굳어버린 행동들과 심지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건설적이지 않는, 또는 건강을 만들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독 'however'이 있으니 III번, IV번 문장 모두 중심 문장!

* lest - ~하지 않도록

V. **And fear can keep / you / from changing (when you don't want to risk a step into unknown territory); for example, some people choose / not to leave / an unfulfilling job or a failing relationship (because they fear the unknown more than the known).**

구 그리고 공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위험을 무릅쓰며 발걸음을 내딛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변화하는 것을 막는다.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은 아는 것들 보다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성취감이 없는 일이나 실패한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독 'for example' 앞 문장은 중심 문장! because 중심 문장!

- 예시는 'for example'과 대응시키며 읽는다!

- 성취감이 없는 일과 틀어진 관계를 떠나지 않는다 = 성취감이 없는 일이나 틀어진 관계를 선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취감이 없는 일이나 틀어진 관계 = the known에 해당하며 예시 앞에서 'keep you from changing'에 해당합니다!

* keep A from V-ing - 'A가 V-ing하는 것을 막다.'

** unfulfill - 성취하지 못하다. (⇔fulfill - 성취하다.)

VI. **On the other hand, fear can also motivate change / in order to avoid something (you're afraid of, such as dying young — as one of your parents might have).**

구 as 불완전한 문장에서 as는 ~하듯이 해석해야 합니다.

- 반면에 공포는 너의 부모 중 한사람이 그러하듯이, 너가 어릴 때 죽는 것과 같이 무서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역접 신호! 중심 문장!

정리하면 1번 문장에서 공포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시하였고 III, IV, V번 문장에서는 공포가 변화를 막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반면 VI번 문장에서는 공포가 변화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① fear's negative roles in cases of chaos

- 혼란의 경우들에서 공포의 부정적인 역할들
- III, IV, V번 혼란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아닌 안정적인 패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포가 변화를 막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는 1번 문장과 VI번 문장에서 제시된 변화를 야기하는 공포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이지 않은 선지에 해당합니다.

③ fear and its dual functions in terms of change

- 공포와 공포의 변화에 관한 두 가지 기능들
- III, IV, V번 문장과 VI번 문장에서 제시된 변화에 대한 공포의 기능을 포괄하는 선지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번이 됩니다.

4. 방향 바꾸기

우리는 21학년도 6월 모평 22번 (Chapter 1-1 중. 최. 평. 4번)에서 ③번 선지를 통해서 조금 경험해 봤습니다! 바로 지문에서 $A \Rightarrow B$ 라고 제시되었을 때 $B \Rightarrow A$ 로 혹은 $B \Rightarrow C$ 등을 통해서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출 문제를 봅시다!

17학년도 6월 모평 22번

When we hear a story, we look for beliefs that are being commented upon. Any story has many possible beliefs inherent in it. But how does someone listening to a story find those beliefs? We find them by looking through the beliefs we already have. We are not as concerned with what we are hearing as we are with finding what we already know that is relevant. Picture it in this way. As understanders, we have a list of beliefs, indexed by subject area. When a new story appears, we attempt to find a belief of ours that relates to it. When we do, we find a story attached to that belief and compare the story in our memory to the one we are processing. Our understanding of the new story becomes, at that point, a function of the old story. Once we find a belief and connected story, we need no further processing; that is, the search for other beliefs stops.

- ① the use of a new story in understanding an old story
- ⑤ the role of our existing beliefs in comprehending a new story

정답 :

정답인 이유 :

오답 :

오답인 이유 :

When we hear a story, we look for beliefs that are being commented upon. **Any story has many possible beliefs inherent in it. But** how does someone listening to a story find those beliefs? We find them by looking through the beliefs we already have. We are not as concerned with what we are hearing as we are with finding what we already know that is relevant. **Picture** it in this way. As understanders, we have a list of beliefs, indexed by subject area. When a new story appears, we attempt to find a belief of ours that relates to it. When we do, we find a story attached to that belief and compare the story in our memory to the one we are processing. Our understanding of the new story becomes, at that point, a function of the old story. **Once we find a belief and connected story, we need no further processing; that is, the search for other beliefs stops.**

I. When we hear a story, / we look for / beliefs (that are being commented upon).

구>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논평되고 있는 믿음을 찾는다고 합니다.

* look for - ~를 찾다.

** comment - 논평하다.

II. **Any story has many possible beliefs (inherent in it).**

구> 모든 이야기는 그 안에 내재된 많은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III. **But** how does someone (listening to a story) find those beliefs?

구>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들을 찾을까?

독> 'But' 앞 뒤는 중심 문장!

IV. **We find them / by looking through the beliefs (we already have).**

구>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통해서 봄으로써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 by V-ing - ~함으로써

V. **We are / not as concerned with (what we are hearing) as / we are with finding (what we already know that is relevant).**

구> 'as A as B'는 'B 만큼 A하다' 'not as A as B'는 'B만큼 A하지 않다'

-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관된 것을 이미 아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관심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을 발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VI. **Picture** it in this way.

구> 'picture'가 명사로 쓰이면 '그림' 동사로 쓰이면 '그림을 하다' = '그림을 그리다'

- 다음 방식으로 묘사해보자고 합니다.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다음 방식인 'this way'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독> 주어 없이 V만 제시되었다면 명령문 중심 문장!

VII. As understanders, / we have a list of beliefs, (indexed by subject area).

구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제에 의해 분류된 신념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index - 색인, 색인을 만들다 (같은 뜻인 목록, 목록을 만들다, 분류하다로 외웁시다.)

VIII. When a new story appears, / we attempt to find / a belief of ours (that relates to it).

구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신념들을 찾는 것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 attempt - 시도하다, 노력하다

IX. When we do, / we find a story (attached to that belief) and (find와 compare 연결) compare the story (in our memory) (A) / to the one (we are processing) (B).

구 여기서 ‘do’는 대동사로 Ⅷ번 문장의 ‘attempt to find ~’을 지칭합니다.

-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신념과 붙어있는 (=연관된) 이야기를 찾고 우리 기억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 (= 새로운 이야기)과 비교한다고 합니다.

* attach - 붙이다. (⇔ detach - 떼다)

** compare A to B - A와 B를 비교하다.

X. Our understanding (of the new story) becomes, (at that point), a function (of the old story).

구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옛날이야기의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XI. Once we find a belief and connected story, we need no further processing; **that is**, the search for other beliefs stops.

구 우리가 신념과 연결된 이야기를 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진행이 필요 없다; 즉 다른 신념에 대한 연구는 멈춘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와 연결된 옛날이야기를 찾으면 다른 옛날이야기를 찾는 것을 멈춘다고 합니다.

독 ‘that is’는 ‘즉’ 재진술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중심 문장!

정리하면 Ⅳ번 문장에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이 Ⅵ, Ⅶ, Ⅷ, Ⅸ, Ⅹ, Ⅺ번 문장을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선지를 확인해 봅시다.

① the use (of a new story) (in understanding an old story)

- 옛날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의 이용

- 즉 새로운 이야기 ⇒ 옛날이야기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지문에서는 옛날이야기 (현재 신념) ⇒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한다고 했으므로 방향을 바꾼 선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답 선지!

* in V-ing - ~함에 있어서

⑤ the role (of our existing beliefs) (in comprehending a new story)

-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현재 신념들의 역할
 - 지문에서 옛날이야기 (= 현재 신념)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한다고 했으므로 정답 선지!
- * comprehend - 이해하다

Q 중심 문장 말고도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A 당연히 해석해야 합니다. 중심 문장은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히 해석해야 하는 문장들입니다.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방향을 알려줄 수 있고 그 문장 자체가 지문의 핵심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에서 좀 더 면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장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능부터 EBS 50% 간접연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신 영어와 얼마나 EBS를 많이 봤고 적중했냐가 아닌 기출과 기본적인 실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출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문장들의 구문들이 이번 수능에서는 중심 문장의 구문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 체화

다음 지문을 읽고 오답 선지와 정답 선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01

17학년도 9월 모평 23번

A strategic vision has little value to the organization unless it's effectively communicated down the line to lower-level managers and employees. It would be difficult for a vision statement to provide direction to decision makers and energize employees toward achieving long-term strategic intent unless they know of the vision and observe management's commitment to that vision. Communicating the vision to organization members nearly always means putting "where we are going and why" in writing, distributing the statement organizationwide, and having executives personally explain the vision and its justification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Ideally, executives should present their vision for the company in a manner that reaches out and grabs people's attention. An engaging and convincing strategic vision has enormous motivational value — for the same reason that a stone mason is inspired by building a great cathedral for the ages.

* stone mason: 석공 ** cathedral: 대성당

- ① What Makes a Strategic Vision Successful?
- ② Why Is Creating a Vision Statement Difficult?

정답 :

정답인 이유 :

오답 :

오답인 이유 :

02

17학년도 6월 모평 23번

Savannas pose a bit of a problem for ecologists. There is an axiom in ecology that ‘complete competitors cannot coexist’: in other words, where two populations of organisms use exactly the same resources, one would be expected to do so slightly more efficiently than the other and therefore come to dominate in the long term. In temperate parts of the world, either trees dominate (in forests) or grasses dominate (in grasslands). Yet, in savannas grasses and trees coexist. The classic explanation proposes that trees have deep roots while grasses have shallow roots. The two plant types are therefore able to coexist because they are not in fact competitors: the trees increase in wetter climates and on sandier soils because more water is able to penetrate to the deep roots. Trees do indeed have a few small roots which penetrate to great depth, but most of their roots are in the top half-metre of the soil, just where the grass roots are.

* axiom: 원리, 공리

- ④ Cyclic Dominance of Trees over Grasses in Savannas
- ⑤ Strange Companions: Savanna Plants Confuse Ecologists

정답 :

정답인 이유 :

오답 :

오답인 이유 :

03

16학년도 수능 22번

Twin sirens hide in the sea of history, tempting those seeking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past onto the reefs of misunderstanding and misinterpretation. These twin dangers are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Temporocentrism is the belief that your times are the best of all possible times. All other times are thus inferior. Ethnocentrism is the belief that your culture is the best of all possible cultures. All other cultures are thus inferior.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unite to cause individuals and cultures to judge all other individuals and cultures by the “superior” standards of their current culture. This leads to a total lack of perspective when dealing with past and / or foreign cultures and a resultant misunderstanding and misappreciation of them.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tempt moderns into unjustified criticisms of the peoples of the past.

- ㉓ historians' efforts to advocate their own culture
- ㉕ beliefs that cause biased interpretations of the past

정답 :

정답인 이유 :

오답 :

오답인 이유 :

When we remark with surprise that someone “looks young” for his or her chronological age, we are observing that we all age biologically at different rates. Scientists have good evidence that this apparent difference is real.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Unlike the passage of time, biological aging resists easy measurement. What we would like to have is one or a few measurable biological changes that mirror all other biological age changes without reference to the passage of time, so that we could say, for example, that someone who is chronologically eighty years old is biologically sixty years old. This kind of measurement would help explain why one eighty-year-old has so many more youthful qualities than does another eighty-year-old, who may be biologically eighty or even ninety years old.

- ① In Search of a Mirror Reflecting Biological Aging
- ④ Secrets of Biological Aging Disclosed

정답 :

정답인 이유 :

오답 :

오답인 이유 :

A strategic vision has little value to the organization unless it's effectively communicated down the line to lower-level managers and employees.⁶⁾ It would be difficult for a vision statement to provide direction to decision makers and energize employees toward achieving long-term strategic intent unless they know of the vision and observe management's commitment to that vision.⁷⁾ Communicating the vision to organization members nearly always means putting "where we are going and why" in writing, distributing the statement organizationwide, and having executives personally explain the vision and its justification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Ideally, executives **should present their vision for the company in a manner that reaches out and grabs people's attention.** An engaging and convincing strategic vision has enormous motivational value — for the same reason that a stone mason is inspired by building a great cathedral for the ages.

* stone mason: 석공 ** cathedral: 대성당

① What Makes a Strategic Vision Successful?

② Why Is Creating a Vision Statement Difficult?



해설

처음 두 문장의 구문이 어렵고 선지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difficult'로 인해서 ②번을 고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두 문장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②번 선지 왜 비전 전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가? 는 지문과 무관합니다. 처음 두 문장은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적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전 전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should'라는 중심 문장의 힌트와 세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비전에 대해 조직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비전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①번 선지의 무엇이 전략적 비전을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에 대한 답이 되므로 정답은 ①번이 됩니다.

해석

전략적 비전은 그것이 효과적으로 하층의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조직에 거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만일 의사결정자들과 직원들이 비전에 대해 알고서 그 비전에 대한 경영진의 헌신을 주시하지 않는다면, 비전의 진술이 장기적인 전략적 의도를 성취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자들에게 방향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열정을 돋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전을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항상 '우리가 가는 곳과 이유'를 적어 두고, 그 진술을 조직 전체에 퍼뜨리고, 임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그것의 정당성을 개인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에 도달해 그것을 붙잡는 방식으로 임원들이 회사를 위해 그들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사람의 마음을 끌고 설득력 있는 전략적 비전은 엄청난 동기부여의 가치를 지니는데, 석공이 후세에 길이 남을 훌륭한 대성당을 건설하는 데에 고무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러하다.

6) A strategic vision has / **little** value (to the organization) / **unless** it's effectively communicated down / the line (to lower-level managers and employees).
 - 이중 부정이 제시될 경우 부정을 모두 지우고 해석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즉, 하층의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완전하게 전달된다면 전략적 비전은 조직에 가치를 가진다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7) It (**가주어**) would be difficult / **for** (**의미상 주어**) a vision statement / **to** (**진주어**) provide direction to decision makers (**provide A to B A에게 B를 제공하다**) and (**provide와 energize 연결**) energize employees (toward achieving long-term strategic intent) unless they know of the vision **and** (**know와 observe 연결**) observe management's commitment (to that vision.)

Savannas pose a bit of a problem for ecologists. **There is an axiom in ecology that ‘complete competitors cannot coexist’**: **in other words**, where two populations of organisms use exactly the same resources, one would be expected to do so slightly more efficiently than the other and therefore come to dominate in the long term. In temperate parts of the world, either trees dominate (in forests) or grasses dominate (in grasslands). **Yet**, in savannas grasses and trees coexist. The classic explanation proposes that trees have deep roots while grasses have shallow roots. The two plant types are **therefore** able to coexist **because** they are not in fact competitors: the trees increase in wetter climates and on sandier soils **because** more water is able to penetrate to the deep roots. Trees do indeed have a few small roots which penetrate to great depth, **but** most of their roots are in the top half-metre of the soil, just where the grass roots are.

* axiom: 원리, 공리

④ Cyclic Dominance of Trees over Grasses in Savannas

⑤ **Strange Companions: Savanna Plants Confuse Ecologists**



해설

상당히 중심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Yet’ 앞과 뒤 문장에서 제시해주었습니다. 경쟁자들은 공존할 수 없고 그래서 나무와 풀이 각각 다른 곳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무와 풀은 경쟁관계가 아니었고 사바나에서 초원들과 나무들이 공존한다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④번 선지 ‘사바나에서 풀들을 넘어서는 나무들의 냉소적인 지배’는

1.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문에서 사바나에서는 풀과 나무가 같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2. ‘Yet’ 앞부분 경쟁자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Yet’ 뒷부분 사바나에서 나무와 풀이 공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⑤번 선지 ‘이상한 친구들: 사바나 식물들이 생태학자를 혼란스럽게 하다.’는 ‘Yet’ 앞과 뒤 내용을 ‘Strange’와 ‘confuse ecologist’와 ‘companion’을 통해서 생태학과는 다른 사바나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이 됩니다.

해석

사바나 지역은 생태학자들에게 약간의 문제를 야기한다. 생태학에는 ‘완전한 경쟁자들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공리가 있다. 다시 말해 유기체의 두 개체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곳에서, 한 개체는 다른 개체보다 약간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이르게 된다. 세계의 온화한 지역에서 나무가 (숲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풀이 (초원지대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사바나 지역에서 나무와 풀이 공존한다. (이 공존 현상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설명에 따르면 나무는 깊은 뿌리를 갖는 반면 풀은 얇은 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식물의 형태는 사실, 서로 경쟁자가 아니므로 서로 공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무는 많은 수분이 깊은 뿌리까지 침투할 수 있으므로 습도가 높은 기후와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 성장한다. 사실, 나무는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몇 개의 작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나무뿌리의 대부분은 풀뿌리가 있는, 토양 상층의 0.5미터 안쪽에 존재한다.

Twin sirens hide in the sea of history, tempting those seeking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past onto the reefs of misunderstanding and misinterpretation. These twin dangers are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Temporocentrism is the belief that your times are the best of all possible times. **All other times are thus inferior.** Ethnocentrism is the belief that your culture is the best of all possible cultures. **All other cultures are thus inferior.**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unite to **cause individuals and cultures to judge all other individuals and cultures by the “superior” standards of their current culture. This leads to a total lack of perspective when dealing with past and / or foreign cultures and a resultant misunderstanding and misappreciation of them.**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tempt moderns into unjustified criticisms of the peoples of the past.

- ③ historians' efforts to advocate their own culture
 ⑤ **beliefs that cause biased interpretations of the past**



해설

역사를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에는 ‘Temporocentrism’과 ‘Ethnocentrism’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Temporocentrism’은 다른 시간들은 열등하며 우리의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고 ‘Ethnocentrism’은 본인의 문화만 우월하며 다른 문화들은 열등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문에서는 이 두 입장이 과거와 외국 문화를 다룰 때 전체적으로 부족한 관점과 결과적인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③번 선지 ‘그들의 문화를 옹호하는 역사가들의 노력’이 왜 틀린 선지일까요? 바로 ‘Temporocentrism’과 ‘Ethnocentrism’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③번 선지는 본인의 문화가 우월하고 다른 문화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Ethnocentrism’에 대한 설명이지 ‘Temporocentrism’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⑤번 선지 ‘과거의 편향된 해석들을 야기하는 신념들’이 정답이 됩니다. ‘Temporocentrism’과 ‘Ethnocentrism’ 모두 편향된 해석을 야기한다고 지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biased’는 ‘편향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외웁시다.

해석

역사의 바다에는 두 개의 사이렌이 숨어 있는데, 그것들은 과거를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 오해와 오역의 암초 위에 올려놓는다. 이 두 가지 위험은 자기 시대 중심주의(temporocentrism)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이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는 자신의 시대가 모든 가능한 시대 중에 최고라는 믿음이다. 모든 다른 시대는 그리하여 열등하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가 모든 가능한 문화 중에 최고라는 믿음이다. 모든 다른 문화는 그리하여 열등하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결합하여 모든 다른 개인들과 문화를 자신들의 현재 문화의 ‘우월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개인들과 문화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과거와/과거나 외국의 문화를 다룰 때 총체적인 관점의 결핍과 그에 따른 그것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평가를 초래한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현대인들을 유혹해 과거의 민족들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비판에 빠지게 한다.

When we remark with surprise that someone “looks young” for his or her chronological age, we are observing that we all age biologically at different rates. **Scientists have good evidence that this apparent difference is real.**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⁸⁾ Unlike the passage of time, biological aging resists easy measurement. **What we would like to have is one or a few measurable biological changes that mirror all other biological age changes without reference to the passage of time, so that we could say, for example, that someone who is chronologically eighty years old is biologically sixty years old.** This kind of measurement would help explain why one eighty-year-old has so many more youthful qualities than does another eighty-year-old, who may be biologically eighty or even ninety years old.

① In Search of a Mirror Reflecting Biological Aging

④ Secrets of Biological Aging Disclosed

해설

지문에서 과학자들은 노화가 서로 다양한 시기에 신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시작되고 매년 변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for example’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시간 경과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생물학적 나이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들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나이 ‘~세’가 아닌 생물학적으로 몇 살인지 측정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①번 ‘생물학적 노화를 반영하는 거울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적 노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나이가 다르고 생물학적 나이를 알고 싶어 한다는 주제와 일치하는 선지이므로 정답입니다. ④번 선지 ‘생물학적 노화의 비밀이 밝혀지다’는 매력적인 오답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문장에서 생물학적 노화가 서로 다른 부위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이 내용이 노화의 비밀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④번 선지가 정답이기 위해서는 A ⇒ 노화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A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A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도 노화가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는 결과를 제시할 뿐이지 왜 노화가 진행되는 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④번 선지는 오답 선지가 됩니다.

해석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의 생활 연령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놀라면서 말할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나이가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걸로 보이는 차이가 진짜라는 좋은 증거를 갖고 있다. 나이 변화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신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시작되고 매년의 변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은 물론 다양한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 시간의 경과와 달리 생물학적 노화는 쉬운 측정을 방해한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생활 연령으로 80세인 어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60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모든 다른 생물학적 나이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이다. 이런 종류의 측정은 80세인 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80 또는 심지어 90세인 또 다른 80세인 사람보다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젊음의 특징을 가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8) It (가주어) is / likely / that (진주어)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과 that을 연결) that (진주어) the rate of annual change / varies /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A as well as B - B뿐만 아니라 A도) from person to person (from A to B - A부터 B까지) = 사람부터 사람까지 = 사람마다.

◆ 중. 최. 평. (중요 최신 평가원 기출)

01 21학년도 9월 모평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ventional wisdom in the West, influenced by philosophers from Plato to Descartes, credits individuals and especially geniuses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and causes are minimized, ignored, or eliminated from consideration at all. Thoughts, original and conventional, are identified with individuals, and the special things that individuals are and do are traced to their genes and their brains. The “trick” here is to recognize that individual humans are social constructions themselves, embodying and reflecting the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they have been exposed to during their lives. Our individuality is not denied, but it is viewed as a product of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The brain itself is a social thing, influenced structurally and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 by social environments. The “individual” is a legal, religious, and political fiction just as the “I” is a grammatical illusion.

- ① recognition of the social nature inherent in individuality
- ② ways of filling the gap between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 ③ issues with separating original thoughts from conventional ones
- ④ acknowledgment of the true individuality embodied in human genes
- ⑤ necessity of shifting from individualism to interdependence

02 21학년도 수능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Difficulties arise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 but assign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to the machines and leave the rest to people. This ends up requiring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 We expect people to monitor machines, which means keeping alert for long periods, something we are bad at.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operations with the extreme precision and accuracy required by machines, again something we are not good at. When we divide up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s and capabilities but instead rely upon areas where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 Yet, when people fail, they are blamed.

- ① difficulties of overcoming human weaknesses to avoid failure
- ② benefits of allowing machines and humans to work together
- ③ issues of allocating unfit tasks to humans in automated systems
- ④ reasons why humans continue to pursue machine automation
- ⑤ influences of human actions on a machine’s performance

03 21학년도 6월 모평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ommon error in current Darwinian thinking is the assumption that “selfish genes” are the prime mover in evolution. In strict Darwinism the prime mover is environmental threat. In the absence of threat, natural selection tends to *resist* change. It is un-biological to “explain” behavioural change as *resulting from* genetic change or the *ex vacuo* emergence of domain-specific brain modules. Evolutionary psychologists surely know why brains evolved: as Cosmides and Tooby point out, brains are found only in animals that move. Brains are behavioural organs, and behavioural adaptation, being immediate and non-random, is vastly more efficient than genetic adaptation. So, in animals with brains, behavioural change is the usual first response to environmental threat. If the change is successful, genetic adaptation to the new behaviour will follow more gradually. Animals do not evolve carnivore teeth and then decide it might be a good idea to eat meat.

* ex vacuo: 무(無)에서의 ** carnivore: 육식 동물

- ① Which Adapts First, Behaviour or Genes?
- ② The Brain Under Control of Selfish Genes
- ③ Why Animals Eat Meat: A Story of Survival
- ④ Genes Always Win the Battle Against Nature!
- ⑤ The Superior Efficiency of Genetic Adaptation

04 21학년도 수능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 analogy: 유사 ** fovea: (망막의) 중심와(窩) *** retina: 망막

- ① Touch and Movement: Two Major Elements of Humanity
- ② Time Does Matter: A Hidden Essence of Touch
- ③ How to Use the Five Senses in a Timely Manner
- ④ The Role of Touch in Forming the Concept of Time
- ⑤ The Surprising Function of Touch as a Booster of Knowledge

중. 최. 평. 해설

01 21학년도 9월 모평 23번

(정답률 6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ventional wisdom in the West, influenced by philosophers from Plato to Descartes, credits individuals and especially geniuses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and causes are minimized, ignored, or eliminated from consideration at all. **Thoughts, original and conventional, are identified with individuals, and the special things that individuals are and do are traced to their genes and their brains.** The “trick” here is to recognize that individual humans are social constructions themselves, embodying and reflecting the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they have been exposed to during their lives. **Our individuality is not denied, but it is viewed as a product of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The brain itself is a social thing, influenced structurally and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 by social environments. The “individual” is a legal, religious, and political fiction just as the “I” is a grammatical illusion.**

해설 [정답 : ①]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산물이라는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문의 내용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주입하셨다면 헛갈릴만한 선지가 많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①번 선지 개성 안에 고유한 사회적 속성의 인식 - 정답 선지!
- ②번 선지 개인성과 집단성의 차이를 채우는 방법 - 그런 내용 없습니다!
- ③번 선지 독창적인 생각을 관례적인 생각들로부터 구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
 - 지문에서 독창적인 생각과 관례적 (=일반적)인 생각을 제시했지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 ④번 선지 인간의 유전자에서 구현된 진실한 개성의 인정
 - 중간까지만 읽고 선지를 보았다면 고르는 선지입니다. 그들의 유전자와 뇌가 개인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뒷 내용에서 그들의 뇌는 사회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고 개성은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괄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 ⑤번 선지 개인주의에서 상호의존으로 변화의 필요성
 - 개인이 (-)인 방향이고 사회가 (+)인 방향으로 지문에서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선지를 고르셨다면 본인의 주관에 개입된 경우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를 판단하지 않고 개인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으므로 무관한 선지에 해당합니다.

1. Conventional wisdom (in the West), (influenced by philosophers from Plato to Descartes), / credits / individuals and especially geniuses /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구) from A to B - A부터 B까지

-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서양의 관습적인 지식은 개인들 그리고 특히 천재들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 conventional - 관습적인

** wisdom - 지혜, 지식

*** credit - V. 믿다.

II. Social and (social과 cultural을 연결) cultural influences and (influences와 cause를 연결) causes / are minimized, ignored, or (minimized, ignored와 eliminated를 연결) eliminated (from consideration at all).

구> ‘or’과 ‘and’ 모두 A, B and/or C로 병렬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과 원인들이 고려로부터 최소화되고 무시되고 제거된다고 합니다.

III. Thoughts, (original and conventional (‘Thoughts’를 수식), are identified with individuals, / and the special things (that individuals are and (are과 do 연결) do) **are traced to** their genes and their brains.

구> ‘형용사,’ 구조는 ‘which is 형용사’에서 ‘which is’가 생략된 것이므로 앞 명사를 수식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독창적이고 관습적인 생각들은 개인들과 동일시되며 그리고 개인들이고 개인들이 하는 특별한 것들은 그들의 유전자와 그들의 뇌들로부터 유래된다고 합니다.

독> ‘be traced to’를 통해서 원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중심 문장!

* be identified with - ~와 동일시하다.

** be traced to - ~로 거슬러 올라가다 (= ~로부터 유래되다 등으로 문맥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IV. The “trick” here / is / to recognize / that individual humans / are / social constructions themselves, (embodying and reflecting the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they have been exposed to during their lives).

구> 그 “속임수”는 그들의 삶 동안 그들이 노출되어온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들을 반영하고 구체화하며 개인들이 사회적 구성 그 자체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V. Our individuality is not denied, **but** it is viewed as a product of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구> 우리의 개성은 부정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로서 보인다고 합니다.

독> ‘but’이 등장했으므로 중심 문장!! 우리의 개성 =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

* A be viewed as B - A가 B로 보인다. A를 B로 간주하다.

Q not A but B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A not A but B는 상관접속사이자 대등접속사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and/or 역시 대등접속사입니다. 대등접속사는 A와 B가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생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가 명사면 B도 명사, A가 동사면 B도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A와 B가 병렬을 이루지 않는다면 ‘not’과 ‘but’을 따로 해석해서 ‘but’의 ‘그러나’의 뜻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될 겁니다. A와 B가 병렬 구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not A but B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not A but B로 해석하면 이상한 경우가 존재하는 평가원 기출이 있습니다.

VI. The brain itself / is a social thing, **influenced** (structurally and (structurally와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를 연결)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 by social environments.

구 and/or 병렬 구조는 같은 역할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부사 and/or 부사 혹은 동사 and/or 동사와 같이 같은 품사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structurally’는 부사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는 전치사 구로 부사 역할!
- 뇌 그 자체로 구조적이고 이것의 연결성 수준에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독 ‘influenced’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므로 중심 문장!

- 뇌 =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회적인 것
- V번 문장 연결해보면 우리의 개성 =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과 VI번 문장 뇌 = 사회적인 것 같은 말이 paraphrasing되고 있습니다!!

VII. The “individual” is a legal, religious, and political fiction (just as the “I” is a grammatical illusion).

구 “나”가 문법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개인”은 법적,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독 비유적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면 문맥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III번 문장에서 독창적이고 관습적인 생각 = 개인으로 동일시되고 그들의 유전자, 그들의 뇌 ⇒ 개인 이고 개인이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V번 문장에서 개인의 개성 =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 VI번 문장에서 뇌 = 사회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V번, VI번 문장을 III번 문장과 연결시키면 사회적 문화적 경험 ⇒ 개인의 개성, 뇌 (사회적인 것) ⇒ 개인이 하는 특별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라는 것 = ‘개인의 개성 혹은 개인의 특별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Q “individual”이나 “trick”처럼 일반적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가 붙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그 이유는 비유적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individual, trick로 “” 없이 제시되었다면 뜻이 고정됩니다. 하지만 “trick”이라고 함으로써 속임수라는 뜻을 강조하거나 “individual”이라고 함으로써 개인을 포함하여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의 특별한 것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Difficulties arise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 **but** assign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to the machines and leave the rest to people. This **ends up** requiring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 We expect people to monitor machines, which means keeping alert for long periods, something we are bad at.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operations with the extreme precision and accuracy required by machines, again something we are not good at. **When we divide up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s and capabilities but instead** rely upon areas where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 **Yet**, when people fail, they are blamed.

해설 [정답 : ③]

구문이 어렵지 않았지만 정답률이 낮은 문제입니다. 해석은 어느 정도 했지만 선지에서 많이 틀린 경우입니다. 어렵지 않게 인간에게 맞지 않은 업무 (= 자동화될 수 있는 어떤 업무든지 간에 기계에게 할당하고 나머지를 사람에게 할당하는 것)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주제를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①번 선지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

- 인간의 약점 =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은 틀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약점으로 재진술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가 틀린 이유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선지입니다. 인간과 기계에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이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지 실패를 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장은 인간에게 맞지 않은 업무를 실패했을 때를 제시했을 뿐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극복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답 선지!

②번 선지 기계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의 장점 - 지문에서 장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③번 선지 자동화된 체계에서 사람에게 맞지 않는 업무를 할당하는 것의 문제점

- 완벽한 정답 선지! allocate의 뜻을 몰라서 정답으로 고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allocate A to B - A를 B에 할당하다. 외웁시다.

④번 사람들이 계속 기계 자동화를 추구하는 이유

- 자동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습니다.

⑤번 인간의 행동이 기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 인간의 행동 ⇒ 기계의 성능이 지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I. Difficulties arise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 **but assign**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to the machines and** (be와 leave 연결) **leave the rest to people**).

구 not A but B - A가 아니라 B이다.

- whatever과 같은 복합 관계대명사는 what을 해석한 후 ~든지 간에를 붙여주면 됩니다.
즉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예시로 whoever은 '누구든지 간에'
- assign A to B - A를 B에 할당하다. 동사가 가지는 특성이므로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 우리가 사람과 기계를 협동 체계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계에 할당하고 나머지를 사람에게 할당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독 'but'이 존재하므로 중심 문장!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을 기계에 맡기고 나머지를 인간에게 맡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읽어 가야 합니다.

II. This / **ends up** requiring /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

구 'end up V-ing'는 '결국에는 V하다'를 의미합니다.

- 'This'는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을 기계에 할당하고 나머지를 인간에게 할당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기계와 같은 방식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독 결과를 제시해주므로 중심 문장! I 번 문장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III. We / expect / people / to monitor machines, (which means keeping alert for long periods), something (we are bad at).

구 '~ , which'는 계속적 용법 ', ' 앞문장을 이어 받습니다.

- 우리는 사람이 기계를 감시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이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인 오랜 기간 동안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독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인 오랜 기간 동안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II 번 문장에서 인간의 능력과 다른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IV. We / require / people / to do repeated operations (with the extreme precision **and** (precision과 accuracy 를 연결) accuracy) (required by machines, again something (we are not good at)).

구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기계에 요구되는 극도의 정확성과 정밀성으로 반복된 작업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독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III 번 문장과 마찬가지로 II 번 문장의 예시입니다!

V. **When we / divide up /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 /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s and capabilities) but instead rely upon areas (where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

구 'in this way'는 Ⅱ번, Ⅲ번, Ⅳ번에서 제시한 사람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을 지칭합니다.

-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의 기계와 사람의 구성요소를 나눌 때 우리는 사람의 강점과 능력의 이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영역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독 기계 구성요소와 사람의 구성요소를 나누는 것은 Ⅰ번 문장의 재진술이자 Ⅱ번, Ⅲ번, Ⅳ번 문장의 재진술이기도 합니다! 재진술되는 문장은 중심 문장!

- 또한 'but'과 'instead'가 나오면서 중심 문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I. **Yet, when people fail, / they are blamed.**

구 그러나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독 'Yet'을 통해서 역접을 보여줬으니 중심 문장!

-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했을 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Ⅰ번 문장과 연결해보면 이 문장이 Ⅰ번 문장의 'Difficulties'와 같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ommon error in current Darwinian thinking is the assumption that “selfish genes” are the prime mover in evolution. In strict Darwinism the prime mover is environmental threat. In the absence of threat, natural selection tends to *resist* change. It is un-biological to “explain” behavioural change as *resulting from* genetic change or the *ex vacuo* emergence of domain-specific brain modules. Evolutionary psychologists surely know why brains evolved: as Cosmides and Tooby point out, brains are found only in animals that move. Brains are behavioural organs, and behavioural adaptation, being immediate and non-random, is vastly more efficient than genetic adaptation. **So, in animals with brains, behavioural change is the usual first response to environmental threat. If the change is successful, genetic adaptation to the new behaviour will follow more gradually.** Animals do not evolve carnivore teeth and then decide it might be a good idea to eat meat.

* ex vacuo: 무(無)에서의 ** carnivore: 육식 동물

해설 [정답 : ①]

뒷 내용을 통해서 행동적 변화 ⇒ 유전적 변화이므로 유전적 변화 ⇒ 행동적 변화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제를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지를 보면

- ①번 선지 어느 것이 먼저 적응하는가, 행동 혹은 유전자?
 - 정답 선지입니다. 행동을 먼저 적응하고 그 후 유전자가 적응한다고 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번 선지 이기적 유전자의 통제를 받는 뇌
 - 이기적 유전자를 통한 설명은 잘못되었다고 하므로 오답 선지
- ③번 선지 왜 동물은 고기를 먹을까 : 생존의 이야기
 - 마지막 문장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문은 왜 고기를 먹는 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 ④번 선지 유전자는 자연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항상 이긴다
 - 무관한 선지입니다. 앞 세 문장만 읽고 본인의 주관이 들어갔을 경우 고를 선지입니다.
- ⑤번 선지 유전적 적응의 우수한 효율성
 - 1. 지문은 유전적 적응이 진화의 원동력이 아닌 행동적 적응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 2. 유전적 적응의 장점 혹은 효율성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 A common error (in current Darwinian thinking) is the assumption (that “selfish genes” are the prime mover in evolution).

구 현재의 다윈주의적 생각에서 흔한 오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독 흔한 오류라고 제시했으니 통념을 제시해주었습니다.

* prime mover - 원동력 (prime 주로, 주된 + mover 움직이는 사람 = 주된 움직임 = 원동력)

고정된 단어이므로 ‘원동력’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II. (In strict Darwinism) the prime mover is environmental threat.

구> 엄격한 다윈주의에서 원동력은 환경적 위협이라고 합니다.

III. (In the absence of threat), natural selection tends to *resist* change.

구> 위협이 없을 때 자연 선택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 absence - 결석, 부재(없음)

IV. It / is / un-biological / to “explain” behavioural change (as *resulting from* genetic change or the *ex vacuo* emergence of domain-specific brain modules).

* ex vacuo: 무(無)에서의

구> It be동사 + 형용사 + to-V는 가주어/진주어 의심!

- ‘It’이 지칭하는 대상이 없으므로 가주어/진주어
- 구체적인 뇌 모듈 영역에서 무에서의 출현 혹은 유전적 변화로부터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비생물학적이라고 합니다.

독> ‘구체적인 뇌 모듈 영역에서 무에서의 출현이’ 해석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앞 문장 내용을 재진술 하는 지 혹은 병렬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뇌 모듈 영역에서 무에서의 출현’과 ‘유전적 변화’가 병렬되어 있으니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지문 내용파악에 좋습니다.

- 즉 이 문장에서는 유전적 변화로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V. Evolutionary psychologists surely / know / why brains evolved: (as Cosmides and Tooby point out), brains are found only in animals that move.

구> 진화 생물학자들은 뇌가 왜 진화했는지 알고 있으며 ‘Cosmides’와 ‘Tooby’가 지적하듯이 뇌는 오직 움직이는 동물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VI. Brains are behavioural organs, / and behavioural adaptation, (being immediate and non-random), is vastly / more efficient / than genetic adaptation.

구> 뇌들은 행동 기관이며 즉각적이고 무작위적이지 않은 행동적 적응들이 유전적 적응보다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VII. **So**, (in animals with brains), behavioural change / is the usual first response (to environmental threat).

구> 뇌를 가진 동물에게 행동의 변화는 환경적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합니다.

독> ‘So’를 통해 결과임을 알 수 있으니 중심 문장입니다.

- 1번 문장에서 제시된 통념인 ‘selfish genes’가 원동력이 아닌 행동의 변화가 원동력이라는 것을 파악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파악 못한 친구들도 문장만이 아니라 문맥을 보는 연습 즉 앞 문장의 내용을 가져오는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VIII. If the change is successful, / genetic adaptation (to the new behaviour) will follow / (more gradually).

구> 만약 변화가 성공적이라면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 적응이 더 점진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독> 행동의 변화 ⇒ 유전적 변화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IX. Animals do not / evolve carnivore teeth and then (evolve와 decide를 연결) decide / (it might be a good idea to eat meat).

** carnivore: 육식 동물

구> 동물들은 육식 동물의 이빨을 발달시키고 나서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 예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Ⅷ번 문장과 연결시켜야하고 Ⅷ번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됩니다!

- 'evolve carnivore teeth' = 'genetic adaptation', 'to eat meat' = 'behaviour adaptation'으로 대응됩니다. 즉 유전적 변화 ⇒ 행동적 변화가 아니라고 제시합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 analogy: 유사 ** fovea: (망막의) 중심와(窩) *** retina: 망막

해설 [정답 : ②]

‘촉각은 시간에 기반하는 감각이다’로 재진술된 지문입니다. 재진술을 파악하는 훈련이 빈칸뿐만 아니라 대의 파악 유형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지도 쉽지는 않습니다. 선지를 보면

- ①번 선지 촉각과 운동 : 인간성의 두 가지 주요 요소 - 완전히 무관합니다. 고르시면 안 됩니다.
- ②번 선지 시간은 중요하다 : 촉각의 숨겨진 본질
 - matter이 V(동사)로 사용되면 ‘중요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촉각에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정답 선지입니다.
- ③번 선지 다섯 감각을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 다섯 감각에 대한 내용이 지문에서 제시되지 않았고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 ④번 선지 시간의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촉각의 역할
 - 킬러 오답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 바꾸기를 배운 저희는 왜 오답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에서는 시간 ⇒ 촉각이라고 재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④번 선지에서는 촉각 ⇒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방향 바꾸기 오답 선지입니다.
- ⑤번 선지 지식의 촉진제로서 촉각의 놀라운 기능
 - 촉각이 지식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습니다. 오답 선지입니다.

1.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 touch /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 as time-based / as it is spatial.

- 구 think of A as B - A를 B로 간주하다
 - as A as B - B만큼 A하다
 - not A but B에서 A와 B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따로 해석! (동사와 절)
 - 사람들은 촉각을 시간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촉각은 공간적인 것만큼 시간 기반적이라고 합니다.

II. You can carry out / **an experiment** / to see for yourself.

구 너는 너 스스로 보기위해서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 실험/연구가 나왔으니 다음 문장부터는 주의하며 읽어야 합니다!

III. Ask / a friend /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up, face, close를 연결) **close his eyes**.

구 Ask A to-V - A에게 V하는 것을 요청하다

- cup his hand를 컵과 그의 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to-V 자리이므로 cup이 V(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cup은 V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울 경우 단어가 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 cup과 같이 동사로 주로 쓰이지 않는 동사는 ‘알고 있는 뜻’을 하다로 해석하시면 뜻을 유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그의 손을 컵하다’ = ‘그의 손을 컵처럼 모으다’

- 친구에게 그의 손을 컵처럼 모으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며 눈을 감아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 palm - 손바닥

IV. Place /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 him /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구 ask A to-V - A에게 V하는 것을 요청하다.

- 그의 손바닥에 반지나 지우개같은 아무 작은 물체를 놓고 어떠한 손의 움직임 없이 그 물체를 확인 하도록 요청하라고 합니다.

V. He won't have /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구 그는 무게와 전체적인 크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VI. Then tell him / to keep his eyes / closed and move / his fingers (over the object).

구 그러면 그에게 눈을 감은 채로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VII. He'll (most likely) / identify it (at once).

구 그는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VIII. By allowing / the fingers / to move, /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구 by V-ing - ~함으로써

- allow A to-V - A가 V하는 것을 허락하다

-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너는 촉각의 감각 지각에 시간을 더했다고 합니다.

독 II번 문장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I번 문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험을 I번 문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I번 문장과 연결하면 촉각의 감각적 지각에 시간을 더한 것 = 촉각이 시간 기반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IX.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 analogy: 유사 ** fovea: (망막의) 중심와(窩) *** retina: 망막

구 → between A and B - A와 B사이에

- 망막의 중심에 있는 중심와와 너의 손가락들은 둘 모두 높은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합니다.

* acute - 극심한, 예민한 ⇒ 명사형 acuity (감각의) 예민함, acuteness (감각의) 예민함, 날카로움

X.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 depends on /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구 → buttoning your shirt도 '너의 셔츠를 버튼을 하는 것' = '너의 셔츠의 단추를 잠그는 것'으로 해석

- 너의 셔츠의 단추를 잠그거나 어둠 속에서 앞 문을 여는 것과 같이 촉각의 복잡한 이용을 하는 능력은 촉각 감각의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독 → I 번, VIII 번, X 번 문장 모두 촉각은 시간에 기반을 둔다는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Q IX번 문장에서 망막 내용은 왜 제시되었나요?

A 평가원이 출제를 할 때는 논문의 일부를 추출하여 지문으로 사용합니다. 2개의 논문에서 추출하여 1개의 지문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개의 논문에서 추출하여 1개의 지문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전체 논문을 추출하지 않고 논문의 일부만 추출하다보니 지문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가 존재합니다. IX번 문장이 위와 같은 경우로 보입니다. 추출한 논문의 단락 앞 단락이 망막 내용으로 보입니다.

◆ 절. 모. 평. (절대평가 모든 평가원 기출)

01 18학년도 수능 22번

[정답과 해설 47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ensory-specific satiety is defined as a decrease in appetite, or the subjective liking for the food that is consumed, with little change in the hedonics of uneaten food. As a result of sensory-specific satiety,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foods, they tend to overeat. A greater variety of food leads people to eat more than they would otherwise. So, being full and feeling sated are separate matters. The recovery of appetite or the motivation to eat is apparent to anyone who has consumed a large meal and is quite full, and does not require additional energy or nutrients to meet their daily needs, but decides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 after seeing the dessert cart. Small changes in the sensory properties of foods are sufficient to increase food intake. For example, subjects who were presented with different shapes of pasta showed increased hedonic ratings and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relative to subjects eating only a single shape of pasta.

* satiety: 포만(감) ** hedonics: 쾌락 *** sated: 충분히 만족한

- ① necessity of consuming a varied diet in daily life
- ② reasons for people's rejection of unfamiliar foods
- ③ changes in people's preference for basic food items
- ④ impact of food variety on the amount of food people consume
- ⑤ importance of maintaining food diversity to prevent overeating

02 19학년도 9월 모평 24번

[정답과 해설 50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adioactive waste disposal has become one of the key environmental battlegrounds over which the future of nuclear power has been fought. Environmentalists argue that no system of waste disposal can be absolutely safe, either now or in the future.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have tried to find acceptable solutions. But in countries where popular opinion is taken into consideration, no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has been found. As a result, most spent fuel has been stored in the nuclear power plants where it was produced. This is now causing its own problems as storage ponds designed to store a few years' waste become filled or overflowing. One avenue that has been explored is the reprocessing of spent fuel to remove the active ingredients. Some of the recovered material can be recycled as fuel. The remainder must be stored safely until it has become inactive. But reprocessing has proved expensive and can exacerbate the problem of disposal rather than assisting it. As a result, it too appears publicly unacceptable.

* exacerbate: 악화시키다

- ① Are Nuclear Power Plants Really Dangerous?
- ② How to Improve Our Waste Disposal System
- ③ No Benefits: Nuclear Power Plants Are Deceiving Us
- ④ An Unresolved Dilemma in Dealing with Nuclear Waste
- ⑤ Ignorance Is Not a Blessing: Policies for Nuclear Issues!

03 20학년도 9월 모평 23번

[정답과 해설 53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Librar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ested in the services they are providing for their users. This is an important focus — especially as more and more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electronically. However, the traditional strengths of libraries have always been their collections. This is true still today — especially in research libraries. Also, collection makeup is the hardest thing to change quickly. For example, if a library has a long tradition of heavily collecting materials published in Mexico, then even if that library stops purchasing all Mexican imprints, its Mexican collection will still be large and impressive for several years to come unless they start withdrawing books. Likewise, if a library has not collected much in a subject, and then decides to start collecting heavily in that area it will take several years for the collection to be large enough and rich enough to be considered an important research tool.

- ① lasting significance of library collections even in the digital age
- ② changing roles of local libraries and their effects on society
- ③ growing needs for analyzing a large volume of library data
- ④ online services as a key to the success of research libraries
- ⑤ rare book collectors' contributions to a library's reputation

04 21학년도 6월 모평 23번

[정답과 해설 55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Problem framing amounts to defining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This is a critical activity because the frame you choose strongly influences you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thereby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For an illustration, consider Thibodeau and Broditsky's series of experiments in which they asked people for ways to reduce crime in a community. They found that the respondents' suggestions chang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metaphor used to describe crime was as a virus or as a beast. People presented with a metaphor comparing crime to a virus invading their city emphasized prevention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 such as eliminating poverty and improving education. On the other hand, people presented with the beast metaphor focused on remediations: increasing the size of the police force and prisons.

- ① importance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for better solutions
- ② difficulty of using a metaphor to find solutions to a problem
- ③ reasons why problem framing prevents solutions from appearing
- ④ usefulness of preventive measures in reducing community crime
- ⑤ effect of problem framing on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s

05 18학년도 수능 23번

[정답과 해설 57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dividual authors and photographers have rights to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uring their lifetimes, and their heirs have rights for 70 years after the creator's death, so any publication less than 125 years old has to be checked for its copyright status.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has increased steadily over the years; the life-plus-70-years standard was set by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which increased the 50-year limit established by the 1976 Copyright Act. Supporters of such legislation like to defend these increases with tales of starving writers and their impoverished descendants, but in reality the beneficiaries are more likely to be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And note that copyright laws serve a dual purpose. In addition to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so as to encourage the publication of new creative works, copyright is also supposed to place reasonable time limits on those rights so that outdated works may be incorporated into new creative efforts. Therefore, the extended copyright protection frustrates new creative endeavors such as including poetry and song lyrics on Internet sites.

* heir: 상속인 ** legislation: 법률, 입법

- ① The Untold Origin of Copyright Protection
- ② Creativity Leaps with Longer Copyright Protection!
- ③ More Is Not Enough: No Limits to Copyright Coverage
- ④ Who Smiles at Copyright Protection, Writers or Publishers?
- ⑤ Does Extended Copyright Truly Enhance Protection and Creation?

06 20학년도 6월 모평 23번

[정답과 해설 60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twelfth to thirteenth centuries there appeared the first manuals teaching “table manners” to the offspring of aristocrats. It was a genre that subsequently had a great success in the early modern period with *The Courtier* by Baldassare Castiglione, *The Galateo* by Monsignor Della Casa, and many others produced in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In a variety of ways and meanings, these are all instruments intended to define or distinguish who is in from who is out, separating the participants from the ostracized. It is for this reason that manuals of “good manners” addressed to the aristocracy always have a negative reference to the peasant who behaves badly, who “doesn't know” what the rules are, and for this reason is excluded from the lordly table. Food etiquette had become a sign of social barriers and of the impossibility of breaking them down.

* aristocrat: 귀족 ** ostracize: 추방하다

- ① table manners as a marker for class distinction
- ② publications to bring about equality between classes
- ③ unintended effects of distinguishing insiders from outsiders
- ④ attempts to elaborate food etiquette for educational purposes
- ⑤ roles of manners in uniting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07 20학년도 수능 24번

[정답과 해설 62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vasions of natural communities by non-indigenous species are currently r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scale environmental problems. The loss of biodiversity has generated concern over the consequences for ecosystem functioning and thu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has become a major focus in ecological research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biodiversity-invasibility hypothesis” by Elton suggests that high diversity increases the competitive environment of communities and makes them more difficult to invade. Numerous biodiversity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since Elton’s time and several mechanism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the often observe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and invasibility. Beside the decreased chance of empty ecological niches but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competitors that prevent invasion success, diverse communities are assumed to use resources more completely and, therefore, limit the ability of invaders to establish. Further, more diverse communities are believed to be more stable because they use a broader range of niches than species-poor communities.

* indigenous: 토착의 ** niche: 생태적 지위

- ① Carve Out More Empty Ecological Spaces!
- ② Guardian of Ecology: Diversity Resists Invasion
- ③ Grasp All, Lose All: Necessity of Species-poor Ecology
- ④ Challenges in Testing Biodiversity-Invasibility Hypothesis
- ⑤ Diversity Dilemma: The More Competitive, the Less Secure

08 20학년도 6월 모평 24번

[정답과 해설 64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acial and ethnic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re better today than in the past, but many changes are needed before sports are a model of inclusion and fairness. The challenges today are different from the ones faced twenty years ago, and experience shows that when current challenges are met, a new social situation is created in which new challenges emerge. For example, once racial and ethnic segregation is eliminated and people come together, they must learn to live, work, and play with each other despite diverse experiences and cultural perspectives. Meeting this challenge requires a commitment to equal treatment, plus learning about the perspectives of others, understanding how they define and give meaning to the world, and then determining how to form and maintain relationships while respecting differences, making compromises, and supporting one another in the pursuit of goals that may not always be shared. None of this is easy, and challenges are never met once and for all time.

* segregation: 분리

- ① On-going Challenges in Sports: Racial and Ethnic Issues
- ② Racial and Ethnic Injustice in Sports: Cause and Effect
- ③ The History of Racial and Ethnic Diversity in Sports
- ④ All for One, One for All: The Power of Team Sports
- ⑤ Cooperation Lies at the Heart of Sportsmanship

09 18학년도 6월 모평 23번

[정답과 해설 66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you've ever seen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verload they are up against. When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a company, for example, they may take into account the people at the helm; the current and potential size of its market; net profits; and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tock value, among other pieces of information. Weighing all of these factors can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that it becomes overwhelmed. Think of having piles and piles of papers, sticky notes, and spreadsheets strewn about your desk, and you get a picture of what's going on inside the brain. When information overloads working memory this way, it can make brokers — and the rest of us — scrap all the strategizing and analyses and go for emotional, or gut, decisions.

* at the helm: 실권을 가진 ** strewn: 표면을 뒤덮은

- ① How Information Overload Can Cloud Your Judgment
- ② Multitasking Increases Your Working Memory!
- ③ How to Prevent Information Flood
- ④ Do Flashing Screens Reduce Information Overload?
- ⑤ Emotional Judgment: The Secret of Successful Brokers

10 20학년도 수능 23번

[정답과 해설 68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But somewhere in between, most people acquire a bit of decency that qualifies them for membership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Genes, development, and learning all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is, however, highly complex, and developmental biologists are only just beginning to grasp just how complex it is.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s, organisms, social groups, and culture, DNA is inert. Anyone who says that people are “genetically programmed” to be moral has an oversimplified view of how genes work. Genes and environment interact in ways that make it nonsensical to think that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or any other developmental proces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nature versus nurture. Developmental biologists now know that it is really both, or nature through nurture. A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of moral evolution and development in the human species is a very long way off.

* decency: 예의 ** inert: 비활성의

- ① evolution of human morality from a cultural perspective
- ② difficulties in study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genes
- ③ increasing necessity of educating children as moral agents
- ④ nature versus nurture controversies in developmental biology
- ⑤ complicated gene-environment interplay in moral development

11 19학년도 수능 24번

[정답과 해설 71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s is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 To help societies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s, a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are often employed to assess and communicate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This effort assumes that people can understand the resulting numbers and act on them appropriately. However, recent behavioral research casts doubt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Indeed, large numbers have been found to lack meaning and to be underestimated in decisions unless they convey affect (feeling). This creates a paradox that rational models of decision making fail to represent. On the one hand, we respond strongly to aid a single individual in need. On the other hand, we often fail to prevent mass tragedies or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 catastrophe: 큰 재해

- ① Insensitivity to Mass Tragedy: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 ② Power of Numbers: A Way of Classifying Natural Disasters
- ③ How to Reach Out a Hand to People in Desperate Need
- ④ Preventing Potential Losses Through Technology
- ⑤ Be Careful, Numbers Magnify Feelings!

12 18학년도 6월 모평 22번

[정답과 해설 74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mistake to give an offensive position away to those who will use it to attack, criticize, and blame. Since opponents will undoubtedly attack, criticize, and blame, anyway, the advantages of being proactive,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 and "telling on oneself" are too significant to ignore.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is the ability to control the first messages and how a story is first framed. That leaves others having to respond to you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This approach is appropriately termed "stealing thunder." When an organization steals thunder, it breaks the news about its own crisis before the crisis is discovered by the media or other interested parties. In experimental research by Arpan and Roskos-Ewoldsen, stealing thunder in a crisis situation, as opposed to allowing the information to be first disclosed by another party, resulted in substantially higher credibility ratings. As significant, the authors found that "credibility ratings associated with stealing thunder directly predicted perceptions of the crisis as less severe."

* dirty laundry: 치부, 수치스러운 일

- ① necessity of being cooperative in a crisis situation
- ② importance of taking the initiative in managing a crisis
- ③ problem of creating false stories to save an organization
- ④ significance of remaining silent in strengthening credibility
- ⑤ advantage of improving the corporate image through media

13 20학년도 9월 모평 24번

[정답과 해설 77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n, the dullness found in the senile, their isolation and withdrawal, their clinging to the past and lack of interest in worldly affairs were characteristically represented as the *symptoms* of senility — the social shame of the inevitable deterioration of the brain. Following World War II, academic discourse on aging typically represented these as the *causes* of senility. The location of senile mental deterioration was no longer the aging brain but a society that, through involuntary retirement, social isolation, and the loosening of traditional family ties, stripped the elderly of the roles that had sustained meaning in their lives. When elderly people were deprived of these meaningful social roles, when they became increasingly isolated and were cut off from the interests and activities that had earlier occupied them, not surprisingly their mental functioning deteriorated. The elderly did not so much lose their minds as lose their place.

* senile: 노쇠한 ** deterioration: 노화

- ① Aged Mind in Concert with Aged Body: An Unfailing Truth
- ② No Change from Past to Present: Social Images of Old Age
- ③ No Country for Old Men: Age Discrimination Intensified
- ④ What Makes the Elderly Decline: Being Left Out Socially
- ⑤ Not Disabled But Differently Abled: New Faces of Old Age

14 19학년도 6월 모평 22번

[정답과 해설 80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erm “biological control” has been used, at times, in a broad context to cover a full spectrum of biological organisms and biologically based products. This has been spectacularly successful in many instances, with a number of pest problems permanently resolved by importation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natural enemies. These importation successes have been limited largely to certain types of ecosystems and/or pest situations such as introduced pests in perennial ecosystems. On the other hand, this approach has met with limited success for major pests of row crops or other ephemeral systems. In these situations, the problem is often not the lack of effective natural enemies but management practices and a lack of concerted research on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importation attempts in the specific agro-ecosystem setting. Thus, importation programs, to date, are largely a matter of trial and error based on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specialists involved.

* perennial: 다년생의 ** ephemeral: 단명하는

- ① difficulties in identifying major pests in agriculture
- ② benefits of introducing natural enemies into ecosystems
- ③ ways to apply biological control strategies to agriculture
- ④ side effects from pest elimination through biological control
- ⑤ reasons for partial success of importation in biological control

15 21학년도 9월 모평 24번

[정답과 해설 83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discovery that man's knowledge is not, *and never has been*, perfectly accurate has had a humbling and perhaps a calming effect upon the soul of modern man. The nineteenth century, as we have observed, was the last to believe that the world, as a whole as well as in its parts,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 We realize now that this is, and always was, impossible. We know within limits, not absolutely, even if the limits can usually be adjusted to satisfy our needs. Curiously, from this new level of uncertainty even greater goals emerge and appear to be attainable. Even if we cannot know the world with absolute precision, we can still control it. Even our inherently incomplete knowledge seems to work as powerfully as ever. In short, we may never know precisely how high is the highest mountain, but we continue to be certain that we can get to the top nevertheless.

- ① Summits Yet to Be Reached: An Onward Journey to Knowledge
- ② Over the Mountain: A Single But Giant Step to Success
- ③ Integrating Parts into a Whole: The Road to Perfection
- ④ How to Live Together in an Age of Uncertainty
- ⑤ The Two Faces of a Knowledge-Based Society

16 19학년도 9월 모평 23번

[정답과 해설 86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For example, in most critics championing Douglas Sirk's films' social critique, self-reflexivity, and, in particular, distancing effects, there is still a refusal of the 'vulgar' enjoyments suspected of soap operas. This refusal again functions to divorce the critic from an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he or she has actually manufactured in order to definitively secure the righteous logic of 'good' taste. It also pushes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 Critiques of mass culture seem always to bring to mind a disrespectful image of the feminine to represent the depths of the corruption of the people. The process of taste-making operated, then, to create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esthete and the mass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esthetic positions contrary to the perceived tasteless pleasures of the crowd.

* vulgar: 저속한, 서민의 ** aesthetic: 미학의, 심미적인

- ① critics' negative view on popular tastes and its effects
- ② criticism of cultural hierarchy in soap operas and films
- ③ side effects of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on crowds
- ④ resistance of the masses to cultural separations and its origins
- ⑤ critics' tendency to identify the refined tastes of the masses

17 19학년도 6월 모평 23번

[정답과 해설 89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the individualist form of rhetoric about science, still much used for certain purposes, discoveries are made in laboratories. They are the product of inspired patience, of skilled hands and an inquiring but unbiased mind. Moreover, they speak for themselves, or at least they speak too powerfully and too insistently for prejudiced humans to silence them. It would be wrong to suppose that such beliefs are not sincerely held, yet almost nobody thinks they can provide a basis for action in public contexts. Any scientist who announces a so-called discovery at a press conference without first permitting expert reviewers to examine his or her claims is automatically castigated as a publicity seeker. The norms of scientific communication presuppose that nature does not speak unambiguously, and that knowledge isn't knowledge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disciplinary specialists. A scientific truth has little standing until it becomes a collective product.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 is only one stage in its construction.

* rhetoric: 수사(학) ** castigate: 혹평하다

- ① Path to Scientific Truth: Scientific Community's Approval
- ② The Prime Rule of Science: First Means Best
- ③ The Lonely Genius Drives Scientific Discoveries
- ④ Scientific Discoveries Speak for Themselves!
- ⑤ Social Prejudice Presents Obstacles to Scientific Research

18 18학년도 9월 모평 23번

[정답과 해설 92page]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consumers lack adequate information to make informed choices, governments frequently step in to require that firms provide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we are all familiar with the mandatory nutritional information placed on food product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t monitors American stock markets forces firms to meet certain reporting requirements before their stock can be listed on exchanges such as the New York Stock Exchange. Such reporting helps ensure that private investors have reliable information on which to base their investment decisions. Often, however, these regulations do not work adequately, as the Enron scandal in 2001 clearly illustrates. The oil trading company Enron had cooked its books to overstate its profitability in its mandated reports. One outcome of Enron's subsequent financial collapse was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design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that companies must provide to the public.

* mandatory: 의무적인 ** subsequent: (결과로서) 일어나는

- ① Financial Advice for Better Market Profitability
- ②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 ③ Ethical Stock Investment for Reliable Businesses
- ④ Disclosing Truth: The Push for Market Credibility
- ⑤ Inflated Figures: The Driving Force for Investment

19 19학년도 수능 23번

[정답과 해설 95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argue that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Related issues arise in connection with current and persistently inadequate aid for these nations,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at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s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With 20 percent of carbon emissions from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carbon credits for forest preservation would combine aid to poorer countries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Perhaps the most cost-effective but politically complicated policy reform would be the removal of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fossil fuels.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would accelerate the already rapid rate of technical progress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in many areas, as well as encourage the essential switch to conservation agriculture.

* mitigation: 완화 ** abatement: 감소 *** subsidy: 보조금

- ① reforming diplomatic policies in poor countries
- ②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 ③ reasons for restoring economic equality in poor countries
- ④ coping with climate change by reforming aid and policies
- ⑤ roles of the OECD in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20 18학년도 9월 모평 22번

[정답과 해설 98pag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sychologists believe that insight is the result of a restructuring of a problem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where the person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get stuck.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is suddenly discovered, leading to a different path to a solution heretofore unpredicted. It has been claimed that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is required to attain insight in the problem situation. As a matter of fact,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and let the mind wander freely. Nevertheless,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that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can be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s in solving the problem, leading to new information being brought in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The new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in finding a solution, thus producing the Aha! Experience.

* heretofore: 지금까지

- ① disadvantages of experience in creative thinking
- ② significance of analytical thinking in gaining insight
- ③ contribution of insight in forming a new perspective
- ④ necessity of separating insight from analytical thinking
- ⑤ difficulty of acquiring in-depth knowledge from experience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argue that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Related issues arise in connection with current and persistently inadequate aid for these nations,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at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s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With 20 percent of carbon emissions from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carbon credits for forest preservation would combine aid to poorer countries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Perhaps the most cost-effective but politically complicated policy reform would be the removal of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fossil fuels.**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would accelerate the already rapid rate of technical progress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in many areas, as well as encourage the essential switch to conservation agriculture.

* mitigation: 완화 * * abatement: 감소 * * * subsidy: 보조금

해설 [정답 : ④]

지문이 구문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진술을 잘 파악하고 한 문장 한 문장 지문 안에서 의미를 파악했다면 완전한 이해는 어려워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와 ‘정책 개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번 선지 가난한 국가의 외교 정책 개혁
 - 정책 개혁이 언급되어 있긴 하나 가난한 국가가 정책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닌 부유한 국가들이 농업과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정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원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괄하지 않는 선지입니다.
- ②번 선지 환경의 위기에 대한 점증하는 세계적 인식
 -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정말 고르기 좋은 오답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에서는 환경의 위기가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적 인식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아닌 현재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장하는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1번 문장의 우리가 주장한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후 변화로부터 가난한 나라들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본인 주장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문장입니다. 시험장에서 이러한 문장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 문장이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모든 문장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제발 끝까지 읽으시고 통합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 ③번 선지 가난한 국가에서 경제적 평등을 복구하는 이유
 - 가난한 국가에게 원조를 해준다는 내용에 주관이 개입될 경우 고를 수 있는 선지입니다. 가난한 국가에게 원조를 해주므로 경제적 평등을 복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닌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조를 하는 것이며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혁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이지 않은 선지에 해당합니다.
- ④번 선지 원조와 정책에 의해서 기후 변화를 대처하는 것
 -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조와 정책 개혁이 제시되었으므로 정답 선지입니다.

⑤번 선지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OECD의 역할

- OECD는 정책 개혁에 대한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 역할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시를 주제로 제시하는 전형적인 포괄적이지 않은 선지입니다.

I. We argue / that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 provide / an essential foundation / for policies (to protect /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 from climate change).

구 'provide A for B'는 'A를 B에게 제공하다'를 의미합니다.

- 'protect A from B'는 'A를 B로부터 막다/예방하다'를 뜻합니다.
- 우리는 정의의 윤리적 원칙이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가난한 국가들을 기후 변화로부터 막아주는 정책에 본질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Q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이 부분을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 for (to-V의 의미상 주어) policies /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로 'provide A to-V'로 해석하면 안 되나요?

A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기출 구문을 아주 꼼꼼히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안 됩니다. 'provide A to B (명사)'로 'B에게 A를 제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provide'는 'to-V'를 목적어로 가지지 않는 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즉 'provide A to-V'처럼 'A에게 V하는 것을 제공하다'는 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언어는 원어민의 관습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이 'provide'에 'to-V'를 목적어로 사용하지 않아 굳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명사적 용법으로 잘못 해석하지만 우리는 'provide' 뒤에 오는 'to-V'가 명사적 용법이 아닌 형용사적 용법 혹은 부사적 용법으로 파악합니다.

II. Related issues arise (in connection) (with current and persistently inadequate aid) (for these nations), /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and (growing threats ~ 와 the rules ~ 를 연결)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at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구 'in face of'는 '~에 직면하여'를 의미합니다.

- 'benefit'은 '이익'인데, 동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이익하다', '이익이 되다'를 의미합니다.
- 농업과 물 공급의 커지는 위협과 부유한 국가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국제 시장의 규칙에 직면하여 현재,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 국가들 (가난한 국가)에 대한 부족한 원조와 결합하여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독 I 번 문장의 문제가 농업과 물 공급의 문제, 국제 무역의 규칙 그리고 부적절한 원조와 관련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III.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s) /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 mitigation: 완화

구>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증가된 원조가 효율적인 완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독> I 번, II 번 문장의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조의 증가를 제시합니다.

IV. With 20 percent of carbon emissions from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 carbon credits (for forest preservation) would combine / aid to poorer countries /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 * abatement: 감소

구> 'combine A with B'는 'A와 B를 결합하다'를 의미합니다.

- (대개 열대지방의) 황폐화로부터 오는 탄소 배출의 20%와 함께, 숲 보호를 위한 탄소 신용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와 비용 효율성이 가장 높은 감소의 형태 중 하나를 결합한다고 합니다.

독>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와 비용 효율성이 높은 감소를 결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 III 번 문장과 마찬가지로 I 번, II 번 문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de- (부정) + forest (V. 숲을 구성하다) + tion (명사형 접사) = deforestation - (토지) 황폐화

V. Perhaps the most cost-effective **but** politically complicated policy reform / would be / the removal of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fossil fuels).

* * * subsidy: 보조금

구> 아마 비용 효율성이 가장 높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복잡한 정책 개혁은, OECD에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수혜인 파괴적인 산업화 농업과 화석 연료로부터 오는 연간 수천억 달러의 직접적인 보조금을 없애는 것일 것이라고 합니다.

독> 'but'이 제시되었으므로 중심 문장!

- IV 번 문장에서 제시된 해결책을 재진술하며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VI.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would accelerate / the already rapid rate of technical progress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in many areas), as well as encourage / the essential switch (to conservation agriculture).

구> 'B as well as A'는 'A뿐만 아니라 B'를 의미합니다.

- 'switch'는 보통 'to'와 함께 쓰이며 'switch to A'는 'A의 변화'를 뜻합니다.

- 이 돈이 적은 양이라도 보존 농업의 본질적인 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투자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독> III 번, IV 번, V 번 문장에서 제시된 해결책을 통한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sychologists believe that insight is the result of a restructuring of a problem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where the person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get stuck.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is suddenly discovered, leading to a different path to a solution heretofore unpredicted. It has been claimed that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is required to attain insight in the problem situation. As a matter of fact,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and let the mind wander freely. Nevertheless,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that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can be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s in solving the problem, leading to new information being brought in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The new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in finding a solution, thus producing the Aha! Experience.

* heretofore: 지금까지

해설 [정답 : ②]

인과관계가 상당히 많이 제시된 지문입니다. 인과관계를 인식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잘 인식하였다면 정답률에 비해 쉬운 문제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문에서 분석적인 생각 ⇒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 ①번 선지 창의적인 생각에 있어서 경험의 단점
 - 누군가는 경험이 없을 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을 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을 뿐 단점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선지입니다. 또한 지문에서는 경험이 없을 때가 아니라 분석적인 생각을 할 때 통찰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즉 문맥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통찰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답 선지입니다.
- ②번 선지 통찰력을 얻기 위한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 지문에서 성공하지 못한 시도 ⇒ 문제의 재구성 ⇒ 새로운 정보 ⇒ 해결책에 있어서 다른 관점 ⇒ 통찰력을 통해서 분석적 사고를 구체화하고 제시했으므로 정답 선지입니다.
- ③번 선지 새로운 관점을 형성함에 있어서 통찰력의 기여
 - 선지는 통찰력 ⇒ 새로운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새로운 관점 ⇒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 선지입니다.
- ④번 선지 통찰력과 분석적인 생각의 분리 필요성
 - 지문에서는 분석적인 생각이 통찰력을 일으킨다고 제시하므로 반대 내용의 선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답 선지입니다.
- ⑤번 선지 경험으로부터 깊은 지식을 얻는 것의 어려움
 - 경험과 지식간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무관한 선지, 언급되지 않은 선지에 해당합니다.

I. Some psychologists believe / that insight is / the **result** of a restructuring of a problem /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where the person is believed /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be focused와 get struck을 연결) get stuck).

구 'get'은 2형식이 가능한 동사로 형용사를 보어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tuck'이라는 형용사를 보어로 가져 'get stuck'은 '꼼짝 못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몇몇의 심리학자들은 통찰력은 사람들이 과거에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꼼짝 못하는 정체의 시기 이후에 문제 재구성의 결과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독 'result'를 통해서 결과를 제시하므로 중심 문장!

- 심리학자들이 믿기에 '문제의 재구성 ⇒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 re- (다시) + structure (구성하다) = restructure - 재구성하다

* * stuck - 꼼짝 못하는

II.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is suddenly discovered, **leading to** a different path (to a solution heretofore unpredicted).

* heretofore: 지금까지

구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은 갑자기 발견되어 지금까지 예측되지 않았던 문제의 다른 길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독 'lead to'로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중심 문장!

-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표현 (= 문제의 재구성) ⇒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III. It has been claimed / that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 is required to attain / insight (in the problem situation).

구 'It'이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주어/진주어입니다.

- 어떠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문제 상황에서 통찰력을 얻는데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되어왔다고 합니다.

* attain - 달성하다, 성취하다, 얻다

IV. As a matter of fact, one **should** break away / from experience and let / the mind / wander freely.

구 'break'는 '부수다'를 의미하고 'away'는 '멀리'라는 이미지이므로 'break away'는 '부수고 멀리가다' 즉 '탈퇴하다, 벗어나다'를 의미합니다.

- 'let + O + O.C (RV)'는 'O가 O.C하도록 하다'를 뜻합니다.

- 사실, 누군가는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야한다고 합니다.

독 'should'가 제시되었으므로 중심 문장!

- 누군가는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 wander - 배회하다

V. **Nevertheless**,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 that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연구들은 통찰력이 실제로 보통의 분석적인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독 ▶ 연구, 역접, 결과가 다 있으니 중심 문장!

- 앞 내용에서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난 것이 통찰력이 아닌 분석적인 생각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 analyze (분석하다) + -tic (형용사형 접사) + -al (형용사형 접사) = analytical - 분석적인

VI.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can be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s (in solving the problem), / **leading to** new information (being brought in)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구 ▶ 'in V-ing'는 'V함에 있어서'를 뜻합니다.

- 'bring A in B'는 'A를 B에 가져오다'를 의미합니다.

- 문제의 재구성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들에서 야기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동안 가져온 새로운 정보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독 ▶ 'cause'와 'lead to'가 인과관계를 제시하므로 중심 문장!

- 성공하지 못한 시도 ⇒ 문제의 재구성 ⇒ 새로운 정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VII. The new information / can **contribute to** /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in finding a solution), **thus** producing the Aha! Experience.

구 ▶ 'in V-ing'는 'V함에 있어서'를 의미합니다.

- 그 새로운 정보는 해결책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관점에 기여하므로 감탄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경험해보라고 합니다.

독 ▶ 'Aha'는 'insight'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contribute to'와 'thus'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제시되었으므로 중심 문장

- 새로운 정보 ⇒ 해결책에 있어서 다른 관점 ⇒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 이를 VI번 문장과 연결하면 성공하지 못한 시도 ⇒ 문제의 재구성 ⇒ 새로운 정보 ⇒ 해결책에 있어서 다른 관점 ⇒ 통찰력으로 정리됩니다.

- 이 과정을 V번 문장과 연결하면 이 과정이 즉, 'analytical thinking'이 됩니다.